

# 주일가정예배

2023년 8월 20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권능의 팔로 붙드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밝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56장 ..... 다같이

1.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 네가 어둠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 네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 너의 최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 령)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누가복음 8:43-48 ..... 인도자

-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이로다 하신대
-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운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설 교 ..... 『 기적을 끌어드린 여인 』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 광 고 】

1.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용케 하옵소서.
2.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하소서.
3. 전도통합예배를 위한 예비 신자를 걱정하고 축복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